

# 시의 시간들...산문으로 기록한 삶 이야기

## CULTURE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시인이자 평론가, 대학교수로 활동 중인 전남 나주 출생 정끝별 시인(이화여대 국문과 교수)이 잇따라 산문집을 펴냈다. 시 산문집으로 읽히는 '시 쓰기 딱 좋은 날'(난다)과 산문집 '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민음사)이 그것.

먼저 '시 쓰기 딱 좋은 날'은 난다에서 기획한 '시의적절' 시리즈로 선보이는 것이다. '시의적절' 시리즈는 일년 동안 열 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 나가는 이야기다. 매일 매일 하나의 이름이자 365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로 꼭 채워온 시리즈 중 하나다. 매일 한 편씩 매달 한 권의 책이 나온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리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시인이 올해 서문을 열었다. 시인은 본인 이름이 유년 시절 못마땅했다는 고백부터 한다.

'어릴 땐 댜는 이름이 못내 못마땅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서아 아버지가 주신 끝별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였구나! 하는 자각이었죠. 누구에게나 다르게 지각되는 끝이라는 시공간적 지점과 수의 관념 전에 폭발해 이미 사라진 존재인데 멀리 높게 빛남으로써 어둠 속 지도가 되기도 하는 별 같은 존재가 바로 시가 아닐까요.'(본문 24~25쪽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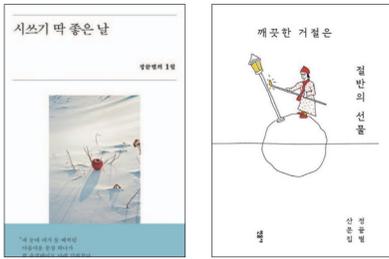
끝별에서 문학적 이름이었음을 깨달으며 그것이 바로 시였다는 술회를 한다. 또 시인은 갑자기 행동하는 모양 혹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갑자기 솟구치거나 떠오르는 모양을 의미하는 '와락'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들려준다.

'와락은 쓸림이고 다급함이다.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밀려옴이다. 떠나감이다. 와락의 순간들이 가까스로 지금-여기의 나를 나리게 한다. 와락 안겨오고 와락 떠나가는 것들, 와락 그림과 와락 슬픈 것들, 와락 엄습하고 와락 분출하는 것들, 와락 저편으로 이편의 나를 떠남겨주는 것들, 그런 물경하고 축축한 와락의 순간들이 밋밋하게 되풀이되는 이 삶을 울그라불그라 살아내게 한다.'(본문 35쪽 중에서)

시인의 시적 성정이 늘 넘쳐나는 듯하다. 하루 하루의 시간들이 시(詩)에 꽃혀있다. 그의 산문에는 따뜻한 일상과 안전한 호흡이 한 편의 시로 자리하고 있다.

시인은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산문에서 '사랑은 밀려온다. 막 밀려온다. 그리고 저 꽃들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

### 시 쓰며 후학 양성 정끝별 시인 산문집 출간



#### '시 쓰기 딱 좋은 날'

난다서 기획한 '시의적절' 시리즈 올 첫번째 책

#### '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

방향 속 친근하고 따듯한 삶의 소중한 지침들

약처럼 온다. 잡결에도 막 밀려오는 것이어서, 사랑은 잠의 품 속에서도 부화하는 것이고, 글이 언어의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자체로 시인인 것'이라고 적고 있다.

또 시 '함박눈이 그렇게 백색의 점묘화를 그리던 한밤 내'를 통해 '그대 우리는 둘이서//함박눈이 한밤의 길 바다에/번지는 잉크처럼/점점이 검은 그림자를 피웠다 사라지는 걸 보았지//가로등 아래서//...후략...'이라고 노래한다. 이번 저서에는 시 9편, 에세이 23편 등 총 32편이 실려있다.

이어 가까스로 일인칭의 민낯을 담은, 명실상부한 첫 산문집인 '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은 일상에 카메라를 장착한 예능 다큐 같은 글들을 모았다고 한다.



정끝별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면서 몸에 이상 신호들이 왔었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흠여져 있던 글들을 다급하게 모은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 속 에피소드, 어느 문장으로도 요약되거나 정리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이들을 키우며 다시 배운 인생, 시와 문학 속에서 깨지는 삶에 대한 사색 등이 망라됐다. 시인이고 평론가이며 교수이기 전에 딸이고 엄마이며 아내인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기념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감각 순도 높은 이야기들이다.

저자는 "여기 묶인 글들은 내 삶이 아픔에 잠기지 않도록 삶의 길목에서 가로등처럼 환한 불이 됐던 편편의 점들과도 같았다.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의 이름에 따뜻한 빛을 내걸던 순간들에 대한 기록인 셈"이라면서 "내가 모방하고 인용하고 표절하며 살았던 가족들, 그러니까 내 시작과 끝 혹은 내 들레와 바탕에 대한 기억이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휴먼' 연작

### 생명과 우주의 본래 모습 복원 담다

권순교 개인전 30일까지 고흥 도화천미술관

권순교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전남 고흥 소재 도화천미술관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100회 이상 대작 '휴먼' 연작 20점.

작가의 작품들은 얼핏 보면 무척 어렵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눈치 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리겠다는 의도로 붓을 들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전광석화 같은 시상이 떠오른 시인처럼 한결같은 일관성 없이 마는 스타 일이다.

작가는 때로 공공거리고, 지웠다 다시 칠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이미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화폭을 들여다보면 작가는 인간과 자연, 다시 말해 생명과 우주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할 뿐이다.

특히 작가는 노자를 담으려고 애쓰다 또는 부처를 흉내낸다. 그가 탐착하는 소재가 물과 인체, 그리고 그 속엔 불성이 어서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해 물 흐르듯 사는 것이 바로 도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중생인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했다는 말을 상기한다.

도화천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 대해 "오늘날 자연과 인간은 예전과 달라 오염되고 비뚤어졌다.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고, 뻗었던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제 자리로 돌려주는 게 작가의 숙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해체했다가 재구성하고, 풀었다가 다시 결합시킨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순교 작가는 유채와 수채,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로 독일과 필리핀, 이태리 밀라노, 브루나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인도 첸나이비엔날레 등 다수 그룹전에 출품,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전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펼쳐

전남문화재단, 기관·예술인 대상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예술인과 기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예술인의 역할을 확장하는 '2025 전남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예술인을 오는 17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로 6번째 진행되고 있는 전남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은 도내 기관과 예술인의 교류협력을 하며, 지역에 산재한 사회문제의 문화예술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개발공사와 롯데아울렛 남양읍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예술 등을 주제로 협업활동을 펼쳤다.

올해 사업 역시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공동의 주제로 시행된다.

공모 대상은 6개 기관과 30명의 예술인(리더예술인 6명, 참여 예술인 24명)이며, 기관과 예술인간의 매칭을 통해 협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신청자격은 기관의 경우 도내 소재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이나 마을 등 단체여야 하며, 예술인은 전남 도내 거주 중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는 사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선정규모의 30% 이상의 '신규 참여자 쿼터제'를 도입, 더 많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전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예술인은 수행기간 동안 월 10일, 30시간 이상의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리더예술인은 6개월간 월 140만원(연 840만원), 참여예술인은 5개월간 월 120만원(연 6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접수기간은 기관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이며, 리더예술인은 오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여예술인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26-7,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클래식 아이돌 '노부스 콰르텟' 브람스 전곡 무대

포시즌 첫번째 'Bramhs'...27일 광주예당 소극장 인터내셔널 음반 발매 기념...현악사중주 1~3번



국내 실내악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이 브람스 현악 사중주 전곡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기획공연 포시즌 첫번째 공연으로 노부스 콰르텟의 'Bramhs'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연다.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2007년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국내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우뚝 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옥,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이원해로 구성됐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들은 '클래식 아이돌'로 불리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뮌헨 ARD 콩쿠르에서 2위 수상, 2014년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에 이어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과 슈베르트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지속적으로 초청받는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가운데 영국 런던 위그모어홀 22/23시즌 한국인 음악가 최초 상주음악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20년 멘델스존 전곡(7곡), 2021년 쇼스타코비치 전곡(15곡), 2022~23년 베토벤 전곡(16곡) 등 꾸준히 전곡연주에 도전하며 기량을 발전시켜왔다.

노부스 콰르텟은 지난달 14일 프랑스 클래식 음악 레이블 아파르테를 통해 브람스의 현악사중주 전곡을 녹음한 인터내셔널 음반을 발매했다.

이번 무대는 음반 발매를 기념해 진행 중인 전국 투어 공연의 하나다.

화려한 조성변화와 빠른 알레그로의 1악장이 특징인 현악사중주 1번, 브람스의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요아힘의 메인 모토인 '자유롭지만 고독하게'(Frei aber einsam)의 머릿글자를 딴 주제가 되풀이되는 특징을 가진 현악사중주 2번, 낭만주의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현악사중주 3번까지 각각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도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하는 브람스 특유의 구조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자연의 대명사가 바람...생명과 자유의 시학

### 이은봉 시집 '바람의 파수꾼' 출간

광주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이은봉 시인이 시집 '바람의 파수꾼'을 시작시인전 522번째권으로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제목인 '바람의 파수꾼' 가운데 '바람'은 생명을 가리키고, 자유를 의미한다. 생명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한 바람은 어떤 파수꾼도 지키지 못한다. 생명을, 자유를, 곧 바람을 지키려 하는 파수꾼은 그것들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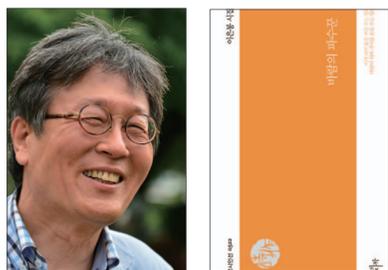
이 시에 나타난 바람은 여러 함의들을 내포한다. 아를테면 바람은 누구도 가두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구름 역시 마찬가지다. 쿠데타도, 내란도 바람이나 구름을 가두지 못한다. 그밖의 어떤 것도 바람이나 구름을 지키지 못한다. 바람이나 구름은 자연의 부분이다.

자연이라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자연의 변화와 움직임을 어떤 파수꾼이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삶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파수꾼도 삶과 역사의 변화와 움직임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인은 자연의 대명사가 바람이구나 구름이라는 생각이다.

나태주 시인은 표사를 통해 이 시인에 대해 "시문과 학문, 즉 예와 학을 겸비한 시인이다. 그런데 그가 교육에서 물러나 혼자서 외롭게 허위허위 살아가면서 상당 부분 학을 버리고 예의 자리로 왔다.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다. 이번 시집이 그 증거"라며 "많은 사람이 외롭고, 우울해하며 세상 살맛이 없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이 시인이 자신의 시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평했다.

해설을 쓴 송기환 평론가는 이번 시집에 대해 "통합을 향한 자아 성찰과 어둠의 상상력"에 주목했다. 송 평론가는 "평론으로 출발해 시인으로 나아가는 문인 시인의 이뤄져야 하는 서정의 꿈이 이번 시집에는 더욱 현명하게 드러난다. 서정을 꿈꾸는 그의 심연에는 불온한 현실에 대한 경계와,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서정적 승화에 대한 열정이 어둠과 밝음의 변증적 관계처럼 쌍



을 이뤄 자리하고 있다"면서 "오래 묵은 슬픔이 목구멍 뜨겁게 채울 때가 있음에도, 때가 되면 저 푸르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봉 시인은 세종시(구 공주) 출생으로 1983년 '삶의 문학' 제5호에 '시와 상상의식 혹은 근대화'를 발표하며 평론가로, 1984년 창작비평 신작 시집 '마침내 시인이여'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생활'과 '걸어 다니는 별', '뒤뚱거리는 마음' 등이 있고, 평론집으로 '시와 생태적 상상력', '시와 깨달음의 형식', '시의 깊이, 정신의 깊이' 등이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